

“번역이 대접받는 풍토를”

申福龍

건국대 정치학과 교수

“번역은 번역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면 한때 번역에 몰두한 적이 있었던 나는 그 말이 야속하게 들리면서도 번역에는 어쩔 수 없이 誤譯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자탄에 빠질 때가 많고, 이제와서 몇년 전 병아리 서생 시절의 오역을 볼 때면 自嘲를 느낄 때가 많다. 그러나 誤譯의 가능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번역 사업을 게을리할 수 없다는 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역의 事例는 얼마든지 있다. “여기에는 하나도 보태고 뺄 것이 없으며, 그런 자는 재앙을 받을 것”(요한계시록 22: 18-19)이라고 말한 성서에도 오역은 있다. 예컨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어렵다”(마태복음 19: 23-24)는 귀절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밧줄로 바늘귀를 끼는 것과 같다”의 오역이다. 히브리성경 원전에서 ‘낙타’와 ‘밧줄’의 발음이 비슷했기 때문에 생긴 오역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후자가 상징적이고 순리이다. 네덜란드의 법학자인 그로티우스(H. Grotius)가 구라과의 30년전쟁(1618-1648)을 개탄하면서 쓴 「전쟁과 평화법」(De Jure Belli ac Pacis Libri Tres, 1625)이 출판되어 국제법의 아버지라는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되자 영미권의 학자들이 앞을 다투어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역이 있었다. 그러나 그 오역된 문장이 너무도 유려하고 논리적이어서 영미권 국제법학자들이 그것이 오역임을 발견한 것은 初譯이 나온 지 1세기가 지난 후였다.

우리나라의 誤譯史도 흥미있다.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창궐한 것은 조선조 고종년간이었다. 이 병이 들어오자 당시 습속대로 중국의 이름과 똑같이 ‘虎列刺’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이 글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호열자’가 아니라 ‘호열랄’이다. 그런데 刺(이그러질 랄)이 刺(칼로 찌를 자)와 한 획이 다른 것이 화근이 되었다. 이 병명이 보편화되면서 ‘랄’과 ‘자’를 구별 못하는 半識者들이 ‘호열랄’을 ‘호열자’로 誤譯하기 시작했고 지금와서 누가 이는 체하며 ‘호열랄’이라고 했다가는 그 사람만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호열랄’의 중국 발음이 콜레라에 가깝지 호열자는 엉뚱한 발음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실록에도 분명히 랄(刺)로 기록되어 있다. (「고종실록」 을미 6월 16일자; 光武 3년 8월23일자; 융희 3년 10월25일자 참조) 요즈음 한국인의 왕래가 빈번한 중국의 上海 특구인 深埭에도 「심천」이 아니라 「심수」가 맞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 모든 한국인이 「심천」이라고 誤譯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이제 한국인들과 얘기할 때는 아예 「심천」이라고 발음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요즘처럼 영어가 보편화된 시대에도 영어의 오역이 흔히 있다. 1957년 10월에 소련은 역사상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마침 그해에 소련의 대권을 잡아 수상이 된 후르시 초프는 기고만장했다. 그는 “스푸트니크가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났으므로 이제 지구가 전보다 더 가벼워졌다”고 익살을 부렸다. 이 말이 外信을 타고 영문으로 “Now, the earth became lighter than before”고 텔렉스로 들어왔다. 그때 국내의 ○○통신의 외신부장은 영어라면 꽤나 자부하던 분이었는데 위의 문장을 “별(인공위성)이 떴으므로 이제 지구는 전보다 더 밝아졌다”고 번역했고 이 통신문을 받은 각 신문사도 그렇게 기사화했다. light의 의미가 ‘빛’이라는 의미와 함께 ‘가볍다’는 뜻이 있다는 것은 중학생이라면 알 일이지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언제나 가능하다.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다보면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다시 번역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번역을 함에 있어서 진실로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오역의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 번역(重譯)의 부도덕성과 비성실성에 있을 것이다. 어떤 점에서 본다면 물가치적 상황에서 편견없이 원전에 충실한 번역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번역도 창작과 같은 정도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知的 풍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뉴스 2 출판협회 창립45주년 기념식·외

표지 4 「韓國의 古地圖」 펴낸 이 찬 교수

집중취재 6 在外한인교포들이 즐겨 읽는 한국의 책

서평 8 최몽룡 외 「한국선사고학사」 — 심봉근

이익섭 「국어표기법연구」 — 김문창

9 최 철 「한국민요학」 — 김선풍

임형택 「이조시대서사시」 — 허경진

10 경실련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 이정우

김영평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 송희준

11 조동성 외 「경쟁에서 이기는 길」 — 윤창호

슬라브학회 「러시아연구」 — 김영준

12 이인식 「사람과 컴퓨터」 — 이정모

슈리딩거 「생명이란 무엇인가」 — 강창원

13 윤후명 「협계열차」 — 김종희

문학서론 14 눈길고는 신세대 작가 신작소설 — 우찬재

출판취재 16 출판관계 간행물 다양하게 선보인다

학위논문 17 전영표 「지식의 국제유통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리포트 18 8·15 이후 일본의 한국문학 수용사 — 안우식

이 책 그 사람 20 「나말려초 선종사상사연구」 낸 추만호씨

「아기참새 찌꾸」 낸 광재구씨

21 「살아나는 임진강」 낸 오연호씨

「한국영화역사상의」 낸 이효인씨

특별기고 22 서울에 책방 차린 재미교포 체험담 — 조승훈

해외출판 24 르네상스시대 맞는 미국의 아동잡지 — 이희재

세계의 책 26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집단 초상·외

28 독자서평

30 화제의 신간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안내

표지사진 / 김흥진